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 10. 13.(화) 15:00부터
담 당 자	한진현 연구위원 (02-3775-9013, hanjh@kiri.or.kr)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02-3775-9115)
매 수	총 8매

보험연구원, 세미나 개최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

- 일 시 : 10월 13일(화) 14:00~16:00
- 장 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7층)

- “기후위기 시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중요”
- “사전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로 전환해 재해 복구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 완화”
- “보험산업, 기후위기 대응 위해 위험관리체계 개선과 기후보험 상품 개발 병행 필요”

○ 보험연구원(원장 김현수)은 보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13일(화) 오후 2시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보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방안,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학계·정부·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 김현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보험산업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이번 세미나의 핵심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해 복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해 복구·지원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험연구원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와 산업에 설득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 세미나에서는 먼저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가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을, 이어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첫 발표를 맡은 남경훈 박사(한국화재보험협회 신사업전략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해 복구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인 ‘보장 공백’이 정부·가계·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 이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전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박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KFPA’)가 축적된 위험 평가 역량을 기반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정보와 예방조치 효과를 보험제도와 연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국내 자연재해와 극한 기상으로 인한 피해와 보장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기후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한 위원은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위험 관리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보험 접근성 개선, 지수형 보험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후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초기 위험을 일부 부담하되 점진적으로 위험을 민간 보험시장으로 이전하고, 실태조사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보험

회사의 위험 평가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표 이후에는 이봉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경민수 코리안리 박사, 김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남수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은실 DB손해보험 수석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험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첨부 1. 세미나 세부일정

■ 첨부 2. 발표자료 요약문

[첨부 1] 세미나 세부일정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 ~ 14:10	개 회 사 김현수 보험연구원 원장
14:10 ~ 14:35	주제발표1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
14:35 ~ 15:00	주제발표2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5:00 ~ 15:10	Break Time
15:10 ~ 16:00	패널토론 좌 장 이봉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토 론 경민수 코리안리 위험자본솔루션팀 박사 김유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서기관 남수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은실 DB손해보험 기후환경부 수석 * 가나다순

[첨부 2] 발표자료 요약문

〈제1주제: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

남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

- ‘자연재해 피해 현황과 위험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자연재해 피해와 보장 공백*을 진단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함

* 보장 공백: 개인·기업·사회가 직면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가운데 보험이나 공적 보장 체계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 (자연재해 피해 현황)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과 피해 지역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은 **공공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최근 지진·태풍·산사태·대설·산불·호우 등 **대형재난의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피해 지역도 매년 달라지는 등 재난 위험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 권역별 연평균기온이 0.77~1.09℃ 상승하고 폭염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
 - **재난 발생 후 복구비가 재산피해액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여,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은 공공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기후위기와 보장 공백)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보험을 통한 위험 이전**은 충분하지 않아 보장 공백이 **정부·가계·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경제적 손실은 정부(복구비 83%)와 가계·기업(자부담 17%) 및 금융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그러나 보장 공백의 규모와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해, **보장 공백에 대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함
- (위험관리 방안) 사후 복구 중심의 자연재해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조치 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통합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재해 관련 정책은 사후 복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저감하는 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적임
 - 자연재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험료 할인, 인수조건 및 재보험 조건 등에

반영하는 ‘예방의 가격화’가 필요함

- 손실 규모에 따라 자부담, 보험·재보험, 지자체 기금 및 국고로 이어지는 단계적 위험 분담체계를 구축해 대형재난 발생 시 공공재정에 손실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KFPA 역할 및 제언)** KFPA는 축적된 위험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정보와 예방 투자 효과를 **보험제도와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보험의 역할을 사후 손실보상에서 **사전 위험정보·예방 투자**로 확장하며, KFPA는 위험정보 제공 및 예방 투자의 효과 검증 기반 강화를 담당할 것임
 -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 평가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협회의 점검자료를 표준화하여 위험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기후보험의 가입률, 지급률, 손해율, 취약계층 보장률 등을 포함한 6개 영역의 지표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보험료 지원 등과 연계하는 **기후보험 성과평가 체계**를 수립 중임

<제2주제: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보험 사례를 살펴보고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보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산업의 과제를 제시
- (국내 보장 공백 확대 가능성) 국내 정부·지자체·보험산업이 극한 기상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심화로 기존 보험 상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날씨로 인한 농작물·양식수산물 피해 또는 재해로 인한 공장·온실 등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지자체와 보험산업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기후위기 심화로 기후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보험상품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해외 기후보험 사례) 해외에서는 기후위험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① 다양한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 ② 날씨에 민감한 사업체에 대한 위험 보장 확대, ③ 지수형 보험*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해외 기후보험 특성>

특성	내용
다양한 기후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층, 재해위험지역 주민, 비공식부문 노동자 등 다양한 기후취약계층 대상 - 상품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날씨 민감 사업체 대상	운항, 운송, 공사, 재생에너지, 레저 시설 등 기상 조건에 민감한 업종 대상
지수형 보험 활용	- 기상 변수, 수위, 침수 면적, 토양 내 수분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 - 기상 악화로 물리적 재산피해 없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보상 - 기존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보장 공백 완화

* 지수형 보험: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정한 지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 물리적 재산피해 없는 경제적 손실: 기상 악화로 고객이 감소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와 같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 없이 발생한 경제적 손실

- (보험산업 시사점) 보험산업은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위험 관리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보험 접근성 개선, 지수형 보험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보장 공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보험산업은 협력을 통해 신규 기후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해 보장 공백을 파악하여 적절한 위험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날씨 민감 사업체에 대한 보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성 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험 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물리적 재산피해 없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 기존 실손형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응해 보장 공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보험산업 과제>

구분	문제점	대응 방안
기후취약계층 대상 사회 안전망 확충	기후변화 심화로 기존 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할 가능성	- 정부: 취약계층 발굴, 실태조사 및 공공데이터 공유로 관련 정보 제공 - 보험산업: 기후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파악해 적절한 보험상품 공급
기후위험 관리 서비스 제공	- 날씨에 민감한 사업체에 대한 기후위험 보장 필요성 - 국내 기업성 보험의 낮은 가입률	- 기후위험 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기후위험 인식을 높이고 피해 규모를 축소 -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기업성 보험의 가입 기반 확대
지수형 보험 활용	물리적 재산피해 없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기존 실손형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 다양한 기상·환경 관측지표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공급 - 기존 보험상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장 강화

○ 보험산업이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보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선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기후·재난 관련 데이터 공유,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기후위험 분담, 방재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험을 일부 부담하여 보장 공백 완화를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시장의 위험 기반 가격 결정 기능이 작동되도록 위험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 평가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